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8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여기 부처 아닌 사람 어디 있나 본래 그대로인데 '자기' 믿어야

15면에서 계속

면 지금 공부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안하면은, 항상 얘기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처해야지 다른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다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또 쉬어야지 판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 겁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구멍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듯이 마음 그 자리에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가 딱 한자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은 한 공전 털구멍 가운데서 보살을 낳고, 털구멍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업보성하면 오간자육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차원이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

만 물론 부순다 하고 안간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유하게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몸뚱이 하나는 한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처럼 바로 선장에 꿰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같구요. 선장이 끌고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배를 탄 중생들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과 같고,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선장이 잘 이끌고 가는데,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고 안에서 뛰면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이 배가 몸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이 한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허허 파도가 치면 치고 배가 앞어지겠으면 앞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내가 공했는데 배가 탄 것은 어디 있었으며 배를 안타는 것은 어디 있었느냐? 파도친 것은 또 어디 있었느냐?"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빙긋이 웃음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배는 지나갈 수 있고, 무사히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부도가 났네, 뭐가 났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몰랐을 때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어떡합니까? 수습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 고훈한테 맡기고, 하늘이 무너지고 회사가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거기다 딱 맡겨놓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맡겨 놓으세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사십니까? 자식이 물에 빠져서 등등 떠내려 간다, 부모가 등등 떠내려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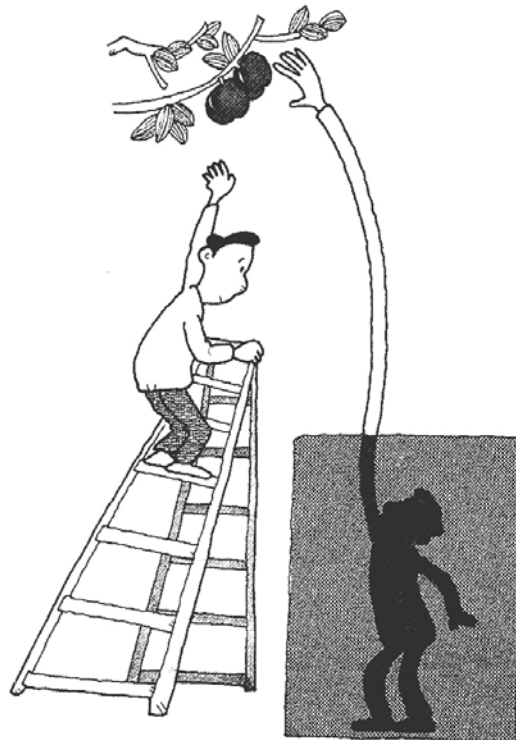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선악인연 내속에 주둔해 있기에 나오는 것 업보성 · 인과성 닥치는대로 놓으면 없어져

치지 말아야 자식도 건지고 부모도 건지 지 마음이 요동치면 같이 다 죽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습니다. 부모가 고생고생하다가 늙어도 고생을 면치 못하고 앓을 때, 애쓰는 것을 볼 때는 그냥 물에 떠내려 가도 어머니만 건져라, 그 어머니의 시자는 건지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떠내려 갈 때는 아직도 시자 노릇을 좀 더 할테니까 죽고 몸뚱이가 썩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탄 사람이 와서 건지게끔 마음을 내는거죠.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도 건지 게 되고, 깔려 죽는 것도 다 살게끔 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의 도리가 아니라면 절대 합들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절대 움켜쥐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임신을 해서 별을 낳을 때에 수없이 낳고, 수없이 들이고, 또 수없이 낳아도 근본이 아니라면, 이 마음의 중심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고고 낼 수가 없습니다.

옛그저께 그 위성이 댔다고 하더군요, 무궁화호라든가 말입니다. 그게 뜰 때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길 그랬습니다. "허허, 이 마음 공부들을 했더라도 들이고 내는데 저장처를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 더 달았으면 제대로 될 것을, 모자라구나."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 위성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서 돌아가는데 인간의 마음이 한 것이지 판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한 거지 판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울렸든지 내렸든지 간에 마음이 선장

이죠. 여러분 중에 차원을 셋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지금 간혹도 관하고 들어가는 사람, 둘째는 관하고 들어가서 나를 탄생시킨 사람, 셋째는 탄생을 시킨 후 점차적으로 점수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세단계가 있다 한다면, 그 첫단계에 공부하는 사람이 뒷단계에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한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집을 지을려면 바로 이 주춧돌부터 아주 완전하게 해놓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위성이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들끓고 날아다니는 건 마음이에요. 물체는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물체가 아닌 마음은 이 우주 삼세를 한 할나에 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에요. 전체를 공 하나 갖다 놓으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무슨 까닭일까요. "전체를 갖다가 요렇게 갖다 놓고 봐도 이젠 도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죠. 보는 것이 무슨 도겠느냐. 이만은 우리가 저 위성을 만들려면 일단, 이단계 차례로 걸작대기를 만들죠. 걸작대기 만드는 것과 같이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오싹하구나. 이걸도 종합해서 모두가 혼자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보는 것, 듣는 것, 상대를 아는 것, 또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 또 내가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가고

오는 것 이런 것이 종합해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몸, 정상인, 그러듯이 우리가 그 정상인 하나가 정상인답게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돌거나 아니면 다른 행성 가서도 돌고, 다른 행성이 만약에 우리 지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돌이 아니게 만드는 작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니라. 그런 사람이 할 수 밖에는 없었죠. 그 속에도 평등공법이라 할지라도 중용이라고 말하죠. 여러가지로 이름이 주어지지만 하려면 그것이 보고 듣고 하는 진재가 모든 들어있으니까요. 보고 들었으면 주여라, 보고 들었으면 결정을 지어라, 보고 들었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잘못됨을 알 수 있으니 수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도 말해 줄 사람한테 말해주고, 그냥 건져 줄 사람이라면 건져주셨던 거죠. 예전에는 양을 많이 잡아서 바쳤답니다. 양을 바치려고 집어지고 갈 때는 양을 건져주고, 소가 죽을 때는 소를 건져주고 해서 부처님 눈에 띄었다면 건져 인도로 환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대운대 내가 시원한대로 놀러가지, 왜 대운대 거기가 가서 깨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져 왜냐하면 내가 지내보니까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또는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누가 주면 주는대로 끌어다가 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또 나한테 온 거 바쳐서 내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두가 순리적이고 합리화해서 항상 모두를 내 스승으로 보고, 내 아들로 보고, 내 몸으로 본다면 그게 거지 아니 겁니까. 수없이 몸을 변하게 만들어서, 키가 모자라서 못 먹을 때는 키를 키우고, 다리가 모자랄 때는 다리를 키우고, 배가 좁을 때는 배를 크게 하고 자기 소관대로 자유스럽게 몸뚱이를 만들어서 사니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생각으로 진화가 된다는 사실요, 어려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몸 자체도 개선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참나를 발견하려고 찾고 믿는 것 말입니다. 믿는 것은 그런 걸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을 나를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것을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면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

되겠는지요? 진짜로 믿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통신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나오는 구멍에 진짜로 넣는 지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에 통신이 되면 한 철만에 대보러 갑니다. 대보러 가서 소의를 거쳐서 아주 할나에 중보에서 책정을 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 모두 제거할 건 하고 수습할 건 하죠. 그게 가능하죠. 모두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데서 되는 거지, 부처도 이릅니다. 여기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님이지, 자기 아닌 속에 진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부처가, 부처 아닌 부처가 본래 그대로 있으면 그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공세 하나 심어서 공씨가 나결랑은 그 공씨는 제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믿어서 공씨가 왕성했을 때는 자기 종자를 다시 얻느니라 이런 거

인과의 나쁜 습성이 나오면 상대방 생각해서 한번 굴러 놓아요 그러면 그런 습성이 없어져요

쁜든 좋은 아버지듯이, 어머니가 못나고 잘나고 병신이면 내 어머니님, 그냥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은 거기서 다 대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지 않고 이리만 부르고 한 가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다면 그건 참 더더죠.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앞에 닦힌 것을 어찌했습니까? 너 아니면 해결 못한다 하구신 마음을 조금도 두지 말고 안되든 되든 일단 맡기고 지켜보세요.

어떤 스님이 사탕을 쓰고 주장자를 짚고선 어느 마을을 건너가는데, 그 마을에 불이 나서 막 타오르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은 몸뚱이가 뛰는 게 아니라 주장자를 척 들다가 치니까, 그 불이 그냥 구름으로 화해서 전부 비로 내리더라고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불이 단번에 꺼지더라고요. 그 스님은 왜이요, 허허허.

그러니 몸뚱이는 아무리 뛰어봤자 버릇입니다. 저 허공에서 만약 비행기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해보세요. 몸뚱이가 아무리 뛰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나?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지요.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술을 한잔 마시구선 몸이 불편하니 조종을 잘못 했는데,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수차례

조, 다시 종자를 얻을 때에는 한 종자가 수만 개로도 되고, 그랬을 때 수만 개의 종자로 다 먹이고도 한 종자는 되나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육체단련도 공부 도움 됩니까

문 관하는 마음은 천차만별이 돼서 마음 하나만 관하는 힘들고, 그래서 몸이 우선 건강해야 마음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쓰면 어떨런지요?

답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건강하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하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잘팔려고 하지도 말고 못팔려고 하지도 말고 닦히는대로 거기가 어차피 팔렸으면 심부름꾼은, 즉 팔하자면 하인은 주인이 하는대로 따라 할 뿐이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지 말아라,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왜 하인이 따지느냐. 그러면 종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깐요 하여튼 그렇게만 맡기세요. 그렇게만, 우리가 옛날에는 주인이 죽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했지 조금도 참견한 예가 없지요. 하인 노릇은 자기 자식까지 전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문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종이 종답게 살아야지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주인일에 참견하다가 그냥 오히려 종이 죽어버리면 주인도 찾지 못하니까요.

집안 해충을 없애고 싶은데...

문 저희가 특히 여름철에 살다보면 집안에 각종 벌레,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것을 먹거나 버릴 때는 한마음 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살아있는 놈을 귀찮고 '힘마음' 하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살아있는 걸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은 차원의 단계가 다릅니다. 지금 갖 배우는 사람한테는 살생하지 마라 이러지만 다 배운 사람 앞에는 무조건 먹여치워야 합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얼마나 고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다 깨우친 스님이 많은 벌레등지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죽여도 건진 것이고, 살려도 건진 것이고, 휘도 건진 것이고, 안휘도 건진 것이고 그냥 모두 건져지는 겁니다.

장기이식 받아도 편찮은지요

문 장기이식이 많이 보편화된 요즘, 스님 법문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나 신장같은 걸 이식 받았을 때 혹시 아까 스님은 말씀하신 그 다섯가지 문제가 같이 달려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식을 받아서 편찮은 것이지 궁금합니다.

답 그거야 선신이나 선교에 들어가는 거죠. 즉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 사람을 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본다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나 늘로 본다면 또 그게 인과가 되죠.

법공양 한마음